

안방극장 캐릭터 합작 열풍



어색한 '공조'...묘하게 통쾌하네

SBS '열혈사제' 검사와 신부 신선 tvN '자백' 변호사와 형사의 시너지 OCN '킬잇' 수의사와 형사가 협업

신부와 검사, 변호사와 형사, 킬러와 형사. 섞이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내 공조를 이루는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묘한 합작'이 눈길을 모은다. SBS '열혈사제', tvN '자백', OCN '킬잇'은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직업의 주인공을 여러 사건으로 절묘하게 연결시켜 신선했던 합작과 반전을 모두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19%(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돌파한 '열혈사제'는 주인공인 신부와 검사의 조합이 인상적이다. 연기자 김남길과 이하니는 사제복을 입고 주먹을 내지르는 신부와 정의보다는 출세에 욕심을 내는 검사로 열연 중이다. 어울리지 않을 듯 어울리는 두 사람은 화끈한 액션과 코믹한 말발로 드라마에 웃음을 채워 넣는다. '자백'의 주인공 이준호와 유재명의 관계도 비슷하다.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변호사 이준호와 과실 수사의 오명을 벗으려는 경찰관 유재명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한 편이 된다. 처음엔 편이한 성격과 수사 스타일로 호흡에 난항을 겪었지만, 차차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녹아든다. '킬잇'은 사랑으로 엮인 킬러와 형사의 공조가 돋보인다. 연기자 장기용은 극중 수의사로 신분을 위장한 킬러를, 나나는 엘리트 형사로 분했다. 장기용은 마피아와 대치하다 위기에 빠진 나나를 구하는 등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랑을 이어간다.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가는 장기용과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나나의 목표가 하나로 겹쳐지는 과정은 두 사람의 운명 같은 공조를 예고한다. 세 드라마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두 직업의 캐릭터가 한 사건으로

얽혀 함께 힘을 합치는 과정을 담는다. 이는 KBS 2TV '닥터 프리즈너'나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처럼 '원톱' 주인공이 극을 이끄는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다. 시청자들은 불협화음을 내던 주인공들이 서서히 톱니바퀴처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고 호평한다.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뜻밖의 반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열혈사제'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김남길을 위해 법을 이용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하니가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열혈 파트너' 김남길-이하니, 스크린도 달군다

SBS '열혈사제' 파트너 열연 상종가 영화 '블로켓' '블랙머니' 차기작 예고

'열혈파트너' 김남길과 이하니가 스크린으로 열혈 행보를 이어간다. 배우로서 어느 때보다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제작진의 러브콜 덕분에이다. 김남길과 이하니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에서 각각 첩보원보다 출중한 신부, 불의를 보면 발끈하는 검사 역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탁월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덕분에 통속적인 설정의 주말드라마가 아니고서야 시청률 20%대를 넘볼 수 없는 최근 지상파 드라마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작품으로도 꼽힌다. 두 사람의 '주가'는 그래서 상한가다. 20일 드라마 종영 뒤 행보에도 시선이 향한다. 김남길은 '열혈사제'를 통해 오랜만에 성공을 맛보면서 저력을 입증했고, 이하니는 영화 '극한직업'의 1600만 흥행에 이어 드라마까지 성공

하면서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김남길은 당초 6월 촬영을 예정한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뒤 또 다른 영화 출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정우와 주연한 영화 '블로켓'의 여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5일 "김남길이가 오랫동안 신뢰를 나는 제작사와 손잡고 남성 투톱 영화에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니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영화와

드라마의 연속 성공을 통해 배우로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그는 정지영 감독의 영화 '블랙머니'를 차기작으로 정하고 세부사안을 논의 중이다. '남부군'부터 '부러진 화살'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의 한 시대를 이끌어온 감독과 작업을 두고 관심의 시선이 쏠린다. 특히 '블랙머니'는 사모펀드가 국내 한 은행을 인수한 과정을 두고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국제 통상 전문가의 이야기다. 배우 조진웅도 이하니와 더불어 출연을 검토 중인 상황. 실화를 연상케 하는 스토리로 관심을 더한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형들이 닦아놓은 미국길...이번엔 '방탄 동생'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내달 美 데뷔 '방탄소년단'과 같은 무대 설치 관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신인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5월 미국에서 데뷔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하기 전부터 '방탄소년단의 동생'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들의 공식적인 미국 진출 무대도 벌써부터 시선을 끌고 있다. 국내 데뷔 두 달 만에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세대 케이팝 스타'로 주목받기 충분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5월9일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12일 시카고, 14일 올랜도, 17일 애틀랜타, 19일 댈러스, 24일 LA 등 6개 도시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각 도시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5000명 등 크지 않은 무대지만 데뷔 두 달 만에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세대 케이팝 스타'로 주목받기 충분하다.

이들은 3월 데뷔 앨범 '꿈의 장:스타'를 발표하고 미국 '빌보드 200'에서 140위를 기록했다. 케이팝 남자그룹 데뷔 앨범 통틀어 '빌보드 200'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또 빌보드에서 '월드 앨범'

1위, '히트시커스 앨범' 2위, '디지털 앨범' 10위, '톱 앨범 세일즈' 26위, '빌보드 캐나다인 앨범' 100위에 올랐고, 데뷔 이후 일주일 만에 앨범 판매량 8만 장을 돌파해 올해 데뷔한 신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과시했다.

이런 성과 위에서 이들이 방탄소년단과 해외에서 한 무대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방탄소년단은 5월11일과 12일 미국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투어를 펼친다. 이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형님들'의 공연 무대에 게스트로 출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들은 이달 28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SBS '인기가요-슈퍼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현지에서 먹힐까?' 정준영 사태 입장 밝힌다

(tvN)

18일 첫방 앞두고 오늘 제작발표회

'정준영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이 여론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시즌3) 제작진은 18일 첫 방송을 앞두고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복 셰프, 신화의 에릭과 이민우, 허경환, 존박, 연출자인 이우형 PD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 소개를 한다.

제작진의 결정에 방송가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정준영과 관련한 시선이다.

프로그램은 3월3일 출국해 현지에서 촬영 중이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의혹을 받아 12일 급

히 귀국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전날까지 진행 중이던 촬영은 바로 중단됐고, 혼란에 빠진 제작진과 출연진은 현장을 재정비하고 촬영을 재개하기까지 애를 먹었다. 정준영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프로그램 전체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을 시작한 뒤에도 정준영 관련 상황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또 다른 출연자들이 이번 사태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 직접 입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작발표회 개최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인 것이다"며 "정준영 외에 다른 출연진이 고생해서 참여한 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고민 끝에 제작발표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3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제니, 화보같은 일상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화보같은 일상을 공개했다. 공연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제니가 바닷가에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고 있다. 끝없는 모래사장 위에서 있는 그의 얼굴은 배경이 된 노을과 겹쳐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크롭티로 멋을 낸 패션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팬들은 "평화로워 보여 좋다" "그림 같은 미모"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블랙핑크 #제니 #후광미모

박유천 법률대리인 선임 마약 투약 의혹 정면 돌파



박유천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의심받은 가수 박유천(33)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자신을 둘러싼 마약 의혹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유천은 15일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향후 관련 사안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박유천의 경찰 출석 일정에 대해 "정해지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앞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하지도, (황 씨에게) 권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2015년 5~6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일 구속된 황 씨는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고, 2017년 황 씨와 교제한 박유천이 해당 연예인으로 의심을 받았다.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인정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